

보도시점 2025. 11. 18.(화) 12:00 배포 2025. 11. 18.(화) 09:00

대구·경북 청년층 혼인·출산 분석

담당 부서	동북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정희길 (053-609-6651)
		담당자	팀 장	이상기 (053-609-6652)
		담당자	주무관	박기훈 (053-609-6661)

일 러 두 기

- 이 보도자료는 대구·경북 청년층의 혼인·출산 현황을 심층분석하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
 - 인구동태 코호트DB* 등을 활용하여 대구·경북의 1983년생^(2023년 기준 만40세)과 1992년생^(2023년 기준 만31세)을 대상으로 인구동태 변동 및 지역 이동과 직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임
 - * 출생연도 인구집단에 대해 혼인-자녀출산-이혼-사망 등의 특성을 연계한 자료
- 분석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신고)*하여 2023년 11월 1일 기준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1983년~1992년생 내국인
 - * 국내 출생신고 기준으로 국외 출생자, 귀화자 및 외국인은 제외됨
- 분석 방법으로 두 코호트를 동일 시점^{2023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과 두 코호트가 동일한 연령대^{만31세}에 도달했을 때의 상태를 비교(동일 연령 비교)하는 것을 함께 수록함
- 활용한 자료의 항목별 작성 시점, 작성 기준 등 각 통계별로 자료를 해석할 필요 있음
 - 혼인은 신고 기준(실제혼인년월)으로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음
 - 혼인은 초혼 기준, 출산은 초산 기준으로 집계함
 - 혼인, 자녀 출산 시 연령은 만 나이로, 혼인 및 출생통계의 출생신고 기준 연령과 다를 수 있음

< 활용자료별 기준 시점 및 특성 >

자료명	활용 항목	기준시점	비고
인구동향조사	출생아 수	1983, 1992	
인구동태 코호트DB	(출생) 출생년월, 성별 (혼인) 혼인년월(실제/신고), 혼인거주지, 학력(혼인시), 직업(혼인시) (출산) 출산년월, 출생아주소지, 학력(출산시), 직업(출산시)	1983.1.1.~ 2023.12.31.	혼인: 초혼 기준 출산: 초산 기준

일 러 두 기

□ 이용상 주의 사항

- 본 기획보도는 1983년~1992년생의 인구동태 분석 결과로서 2023년 기준 만 31~40세의 청년층으로 아직 혼인 및 자녀 출산 등 생애 사건 경험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코호트로 해석에 유의해야 함
- 실제 혼인은 2023년 12월 이전, 혼인신고는 2024년 이후에 발생한 경우(사실혼), 집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혼인한 사람과 평균 혼인 연령이 실제보다 과소 집계될 수 있음
- 혼인 거주지, 출생아 주소지 등은 신고자가 기재한 주소로 실제 주소지와는 다를 수 있음에 유의
- 또한, 매년 공표되는 인구동태 기간 통계 결과와 상이한 수치를 나타낼 수 있음에 유의
 - (기간 통계) 2023년 기준 인구동태 기간 통계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2023년도에 발생(신고)한 사건(출생, 혼인, 이혼, 사망)에 대한 통계로, 그들의 혼인, 출산, 이혼, 사망 등의 특성을 각각 분석한 통계이고,
 - (코호트 통계) 2023년 기준 인구동태 코호트 통계는 특정 출생년도(예:1983년생)의 인구 집단이 2023년까지 나이 들어가면서 경험한 혼인, 출산, 이혼, 사망 등의 인구동태 사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통계임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보도자료에 사용된 용어는 부록의 「용어정의」를 참고

□ 본 자료는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ardb>)에 게시 예정임 ※ 새소식 > 보도자료 > 기획보도자료

목 차

□ 요약	1
□ 작성 결과	
I. 혼인 현황	
1. 출생아 수	3
2. 혼인한 사람	3
3. 혼인 연령	4
4. 혼인신고 지연	5
II. 출산 현황	
1. 출산한 사람	7
2. 출산 자녀 수	8
3. 출산 연령	9
4. 혼인·출산 간격	10
III. 혼인·출산 간 이동 현황	
1. 혼인·출산 간 이동	12
2. 혼인·출산 간 주요 이동지역	14
3. 혼인·출산 간 순이동	18
4. 직업별 다른 지역 출산 비율	19
5. 맞벌이 여부별 다른 지역 출산 비율	21
IV. 혼인·출산 시 직업 현황	
1. 혼인·출산 시 직업 여부	22
2. 직업별 혼인·출산 시 직업 여부	24
3. 학력별 혼인·출산 시 직업 여부	26
□ 부록	27



대구·경북 청년층 혼인·출산 분석



혼인 현황

혼인한 사람 및 혼인연령

■ 혼인한 사람 ○ 평균 초혼연령 (대구, 경북) — 평균 초혼연령 (전국) (천명, 세)



혼인신고지연(1년이상) 비율

(%)



출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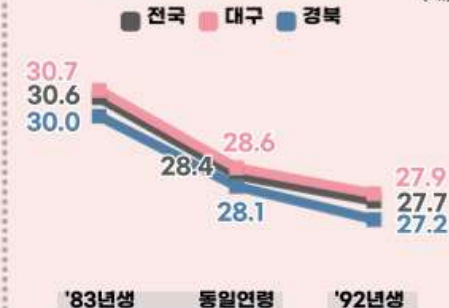
여성의 다자녀출산(2명이상) 비율

(%)



여성 평균 초산연령

(세)



여성 평균 혼인·출산간격

(개월)



혼인·출산 간 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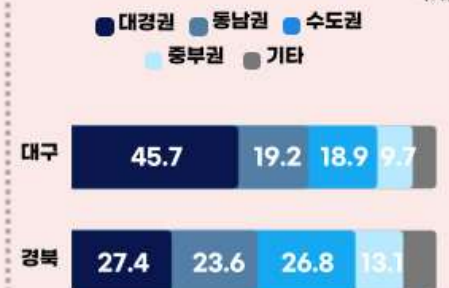
혼인자중 타 시도 출산 비율

(%)



타 시도 출산 지역

(%)



맞벌이·아부벌 타 시도 출산 비율

(%)



혼인·출산 시 직업 현황

직업여부: 혼인 o 출산 o

(%)



직업여부: 혼인 o 출산 x

(%)



국가데이터센터
동북지방통계청

대구·경북 청년층 혼인·출산 분석 (요약)

1. 혼인 현황

‘92년생 혼인한 사람의 1년 이상 혼인신고 지연 비율 높아져

- (혼인한 사람) ‘83년생 중 혼인한 사람은 대구 2만 3천명, 경북 2만 4천명이고, ‘92년생은 대구, 경북 모두 8천명임
- (혼인 연령) ‘83년생 중 혼인한 사람의 평균 초혼연령은 대구 30.0세, 경북 29.4세이고, ‘92년생은 대구 27.5세, 경북 27.0세임
- (혼인신고지연) 혼인한 ‘92년생의 혼인신고 지연(1년 이상) 비율은 대구와 경북 모두 10.3%로 전국(9.1%) 대비 각각 1.2%p 높음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 혼인자의 혼인신고 지연(1년 이상) 비율은 대구 1.6%p, 경북 1.5%p 높음
 - ‘92년생 혼인한 사람의 평균 혼인신고 지연 기간은 대구 3.8개월, 경북 3.9개월로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각각 0.1개월 짧음

2. 출산 현황

‘92년생 혼인한 여성의 2명 이상 다자녀 출산 비율 크게 하락하고, 평균 초산연령은 낮아지고, 평균 혼인·출산 간격은 길어져

- (출산 자녀수) ‘92년생 여성 중 혼인 후 2명 이상 출산한 비율은 대구 31.4%, 경북 39.8%로 전국(34.2%) 대비 대구는 2.8%p 낮고, 경북은 5.6%p 높음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 여성 중 혼인 후 2명 이상 출산한 비율은 대구는 23.9%p, 경북은 22.2%p 낮음
- (출산 연령) ‘92년생 혼인한 여성의 평균 초산연령은 대구 27.9세, 경북 27.2세로 전국(27.7세) 대비 대구는 0.2세 높고, 경북은 0.5세 낮음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 혼인한 여성의 평균 초산연령은 대구는 0.7세, 경북은 0.9세 낮음
- (혼인·출산 간격) ‘92년생 여성의 평균 혼인·출산 간격은 대구 18.6개월, 경북 17.8개월로 전국(18.5개월) 대비 대구는 0.1개월 길고, 경북은 0.7개월 짧음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 여성의 평균 혼인·출산 간격은 대구는 0.9개월, 경북은 0.1개월 길게 나타남

3. 혼인·출산 간 이동 현황

‘92년생 대구 혼인자의 타 시도 출산 비율은 경북, 동남권, 수도권 순이고, 경북 혼인자의 타 시도 출산 비율은 대구, 수도권, 동남권 순으로 나타나

- (혼인·출산 간 이동) ‘92년생 대구·경북에서 혼인 후 다른 지역(타 시도)에서 출산한 비율은 대구 20.9%, 경북 18.4%로 ‘83년생 대비 각각 0.5%p, 2.1%p 낮음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 대구·경북에서 혼인 후 다른 지역(타 시도)에서 출산한 비율은 대구 1.8%p, 경북 2.6%p 낮음
- (이동 지역^{대구}) ‘92년생 대구에서 혼인하고 타 시도에서 출산한 사람의 출산 지역 비율은 대경권^{경북}(45.7%), 동남권(19.2%), 수도권(18.9%) 순임
- (이동 지역^{경북}) ‘92년생 경북에서 혼인하고 타 시도에서 출산한 사람의 출산 지역 비율은 대경권^{대구}(27.4%), 수도권(26.8%), 동남권(23.6%) 순임
- (맞벌이 여부별) 대구·경북에서 혼인한 ‘92년생의 맞벌이 여부^{혼인시}별 타 시도 출산 비율은 대구, 경북 모두 맞벌이가 각각 17.7%, 15.5%로 가장 낮음

4. 혼인·출산 시 직업 현황

‘92년생 혼인과 출산 시 모두 직업이 있는 비율 높아져

- (혼인·출산 시 직업 여부) 혼인과 출산 시 모두 직업이 있는 비율은 ‘83년생은 대구 59.9%, 경북 59.6%, ‘92년생은 대구 64.3%, 경북 64.3%임
 - ‘83년생 대비 ‘92년생의 혼인과 출산 시 모두 직업이 있는 비율은 대구 4.4%p, 경북 4.7%p 높음
- (직업별) ‘92년생의 직업^{혼인시}별 혼인 시 직업이 있고 출산 시 직업이 없는 여성의 비율은, 대구는 기능·조립·단순노무 종사자(32.6%), 경북은 서비스·판매 종사자(32.3%)가 가장 높고,
 - 대구, 경북 모두 사무종사자가 각각 15.8%, 15.9로 가장 낮음
- (학력별) ‘92년생의 학력^{혼인시}별 혼인·출산 시 모두 직업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대졸 이상 비율이 대구 59.7%, 경북 60.6%로 고졸이하 보다 높고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대구는 22.1%p 높고, 경북은 24.4%p 낮음

I. 혼인 현황

1. 출생아 수

※ 인구동태 코호트DB에는 출생지 항목이 없어 대구·경북의 출생 코호트를 작성할 수 없음

□ '92년생은 대구 3만 7천 명, 경북 3만 8천 명으로 '83년생 대비 대구는 5.7% 증가, 경북은 32.9% 감소함

○ '83년생 대비 '92년생의 증감률은 전국(-5.0%) 대비 대구는 10.7%p 높고, 경북은 27.9%p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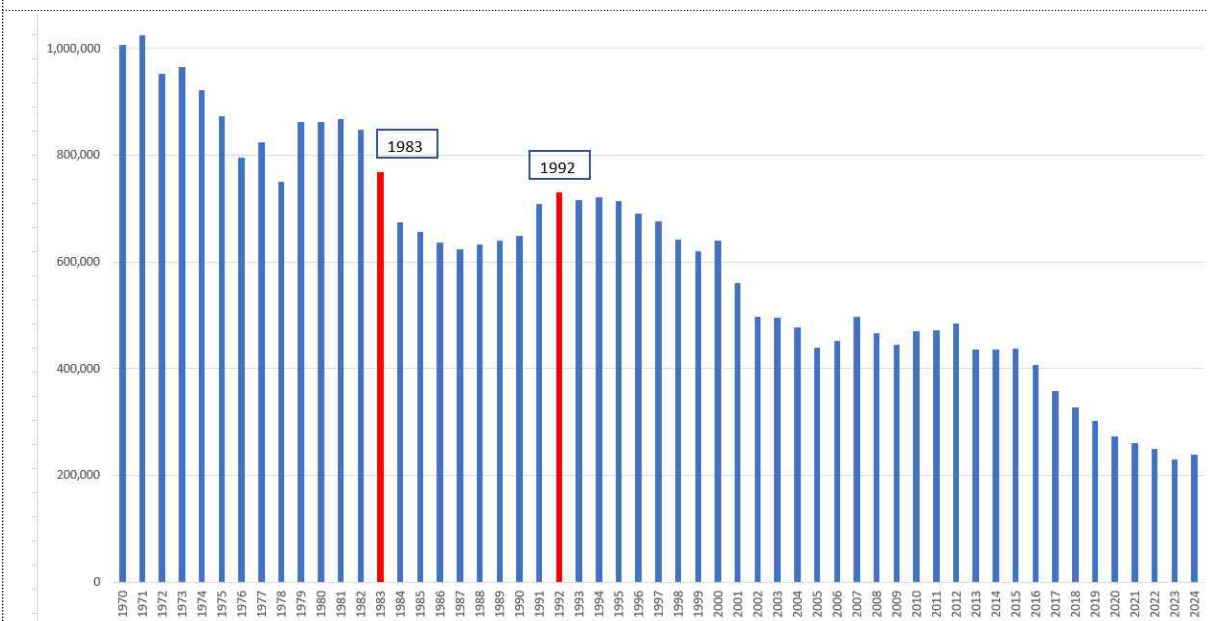
<표 1> 대구·경북 출생아 수

(단위: 천 명, %)

	1983년생(A)	1992년생(B)	증감(B-A)	증감률
전국	769	731	-38	-5.0
수도권	306	362	56	18.3
대구	35	37	2	5.7
경북	57	38	-19	-32.9

출처: 인구동향조사(국가데이터처)

<출생아 수 추이>



2. 혼인한 사람

- '83년생 중 혼인한 사람은 대구 2만 3천 명, 경북 2만 4천 명이고, '92년생 중 혼인한 사람은 대구와 경북 모두 8천 명으로 나타남
- '92년생 중 혼인한 사람은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각각 52.3%, 53.7% 감소함

<표 2> 대구·경북에서 혼인한 사람

(단위: 천 명, %)

	1983년생			1992년생과 동일 연령 ^{주1} (A)			1992년생(B)			증감률(B-A)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510	240	270	362	149	213	181	70	112	-49.8	-53.1	-47.5
수도권	269	128	141	184	76	108	93	36	58	-49.3	-53.0	-46.6
대구	23	10	13	17	6	10	8	3	5	-52.3	-54.6	-50.9
경북	24	11	13	18	8	11	8	3	5	-53.7	-57.5	-51.0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주1: 1983년과 1992년생의 동일한 연령 간 비교를 위해 1983년생이 만 31세(23년 기준 1992년생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

주2: 대구·경북 혼인신고서 거주지 기준

3. 혼인 연령

※ 혼인(초혼) 연령은 혼인신고년월이 아닌 실제혼인년월 기준으로 계산함

- '83년생 중 혼인한 사람의 평균 초혼연령은 대구 30.0세, 경북 29.4세로 전국(30.0세) 대비 대구는 동일하고, 경북은 0.6세 낮음
- '92년생 중 혼인한 사람의 평균 초혼연령은 대구 27.5세, 경북 27.0세로 전국(27.5세) 대비 대구는 동일하고, 경북은 0.5세 낮음

<표 3> 대구·경북에서 혼인한 사람의 평균 초혼연령

(단위: 세)

	1983년생			1992년생(B)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30.0	31.0	29.1	27.5	28.0	27.3
수도권	30.3	31.3	29.4	27.8	28.2	27.5
대구	30.0	31.1	29.1	27.5	28.0	27.3
경북	29.4	30.5	28.4	27.0	27.6	26.7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주: 대구·경북 혼인신고서 거주지 기준

4. 혼인신고 지연

- '83년생 중 혼인한 사람의 혼인신고 지연(1년 이상) 비율은 대구 9.0%, 경북 8.9%로 전국(8.6%) 대비 각각 0.4%p, 0.3%p 높음
 - '92년생 중 혼인한 사람의 혼인신고 지연(1년 이상) 비율은 대구와 경북 모두 10.3%로 전국(9.1%) 대비 각각 1.2%p 높음
- 동일 연령으로 비교하면, '83년생은 대구 8.7%, 경북 8.8%로 '83년생 대비 '92년생의 혼인신고 지연 비율은 대구 1.6%p, 경북 1.5%p 높음
 - '92년생 여성은 대구 10.4%, 경북 10.3%로 남성 대비 대구는 0.3%p, 경북은 0.1%p 높음

<표 4> 대구·경북에서 혼인한 사람의 혼인신고 지연^{주3)}(1년 이상) 비율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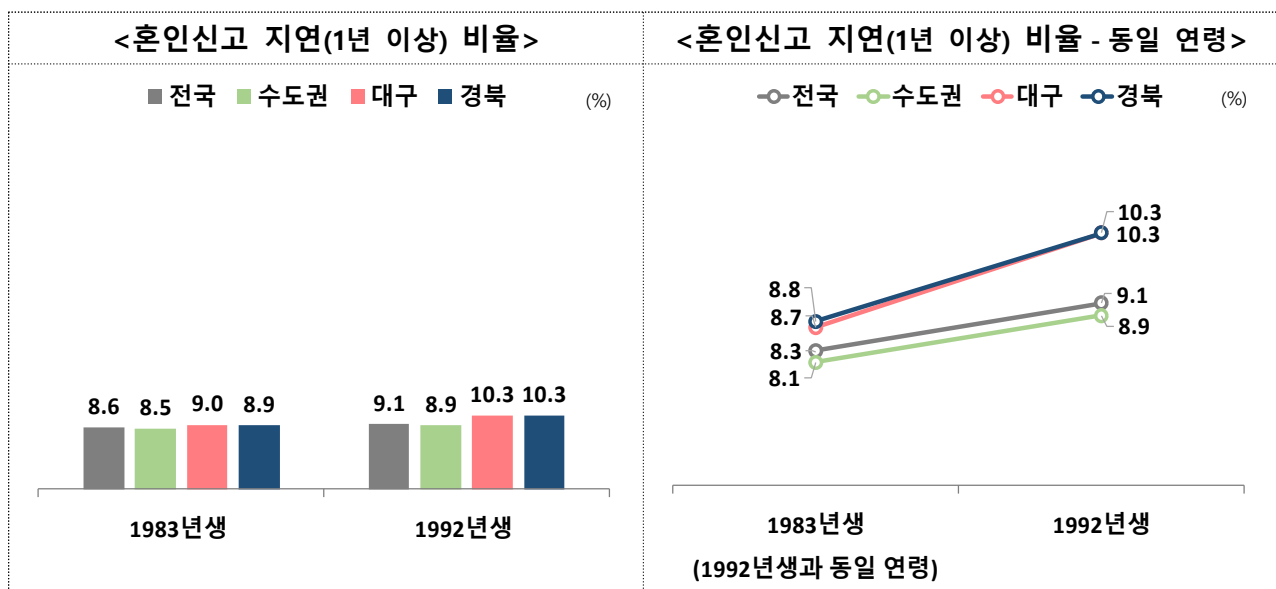
	1983년생			1992년생과 동일 연령 ^{주1} (A)			1992년생(B)			차이(B-A)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8.6	8.7	8.5	8.3	8.2	8.3	9.1	8.7	9.4	0.8	0.5	1.1
수도권	8.5	8.7	8.4	8.1	8.0	8.1	8.9	8.4	9.3	0.8	0.4	1.2
대구	9.0	9.3	8.8	8.7	8.9	8.6	10.3	10.1	10.4	1.6	1.2	1.8
경북	8.9	9.0	8.9	8.8	8.7	8.8	10.3	10.2	10.3	1.5	1.5	1.5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주1: 1983년과 1992년생의 동일한 연령 간 비교를 위해 1983년생이 만 31세(23년 기준 1992년생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

주2: 대구·경북 혼인신고서 거주지 기준

주3: 혼인신고 지연 기간 = 신고혼인(초혼)년월 - 실제혼인(초혼)년월 신고혼인년월이 실제혼인년월을 앞서는 경우 제외



- '83년생 중 혼인한 사람의 평균 혼인신고 지연 기간은 대구 3.9개월, 경북 4.0개월로 전국(3.7개월) 대비 각각 0.2개월, 0.3개월 길게 나타남
 - '92년생 중 혼인한 사람의 평균 혼인신고 지연 기간은 대구 3.8개월, 경북 3.9개월로 전국(3.4개월) 대비 각각 0.4개월, 0.5개월 길게 나타남
- 동일 연령으로 비교하면, '83년생은 대구 3.9개월, 경북 4.0개월로 '83년생 대비 '92년생의 혼인신고 지연 기간은 각각 0.1개월 짧음
 - '92년생 여성은 대구 3.8개월, 경북 4.0개월로 남성 대비 대구는 0.1개월, 경북은 0.2개월 길게 나타남

<표 5> 대구·경북에서 혼인한 사람의 평균 혼인신고 지연 기간^{주3)}

(단위: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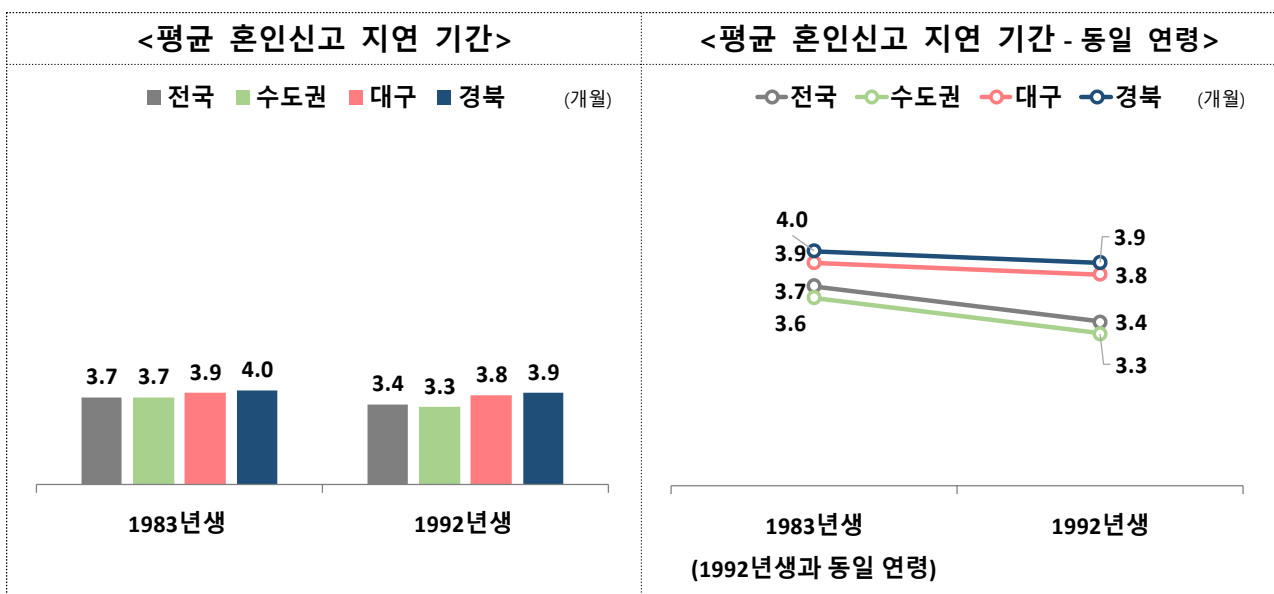
	1983년생			1992년생과 동일 연령 ^{주1} (A)			1992년생(B)			차이(B-A)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3.7	3.7	3.8	3.7	3.7	3.8	3.4	3.3	3.5	-0.3	-0.4	-0.3
수도권	3.7	3.6	3.7	3.6	3.6	3.7	3.3	3.1	3.4	-0.3	-0.5	-0.3
대구	3.9	3.9	3.9	3.9	3.8	3.9	3.8	3.7	3.8	-0.1	-0.1	-0.1
경북	4.0	3.9	4.0	4.0	3.9	4.0	3.9	3.8	4.0	-0.1	-0.1	0.0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주1: 1983년과 1992년생의 동일한 연령 간 비교를 위해 1983년생이 만 31세('23년 기준 1992년생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

주2: 대구·경북 혼인신고서 거주지 기준

주3: 혼인신고 지연 기간 = 신고혼인(초혼)년월 - 실제혼인(초혼)년월 신고혼인년월이 실제혼인년월을 앞서는 경우 제외



II. 출산 현황

1. 출산한 사람

- 혼인 후 출산한 여성은 '83년생은 대구 1만 2천 명, 경북 1만 2천 명이고, '92년생은 대구 3천 명, 경북 4천 명임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 중 혼인 후 출산한 여성은 대구 57.6%, 경북 56.9% 감소함

<표 6> 대구·경북에서 혼인 후 출산한 사람

(단위: 천 명, %)

	1983년생			1992년생과 동일 연령 ^{주1} (A)			1992년생(B)			증감률(B-A)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443	204	239	246	92	154	103	36	67	-58.0	-60.2	-56.7
수도권	229	106	123	118	44	74	48	17	31	-59.3	-61.7	-57.8
대구	21	9	12	12	4	8	5	2	3	-58.5	-60.2	-57.6
경북	22	10	12	13	5	8	6	2	4	-59.0	-62.5	-56.9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주1: 1983년과 1992년생의 동일한 연령 간 비교를 위해 1983년생이 만 31세('23년 기준 1992년생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

주2: 대구·경북 혼인신고서 거주지 기준, 혼외출산 제외

- 혼인 후 출산한 여성의 비율은 '83년생은 대구 90.8%, 경북 90.9%이고, '92년생은 대구 63.9%, 경북 68.4%임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 중 혼인 후 출산한 여성의 비율은 대구는 10.2%p, 경북은 9.3%p 낮음

<표 7> 대구·경북에서 혼인 후 출산한 비율

(단위: %, %p)

	1983년생			1992년생과 동일 연령 ^{주1} (A)			1992년생(B)			차이(B-A)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86.8	84.8	88.5	67.9	61.6	72.4	56.8	52.2	59.7	-11.1	-9.4	-12.7
수도권	85.1	83.1	87.0	64.1	57.7	68.6	51.4	47.0	54.2	-12.7	-10.7	-14.4
대구	89.4	87.7	90.8	69.5	62.0	74.1	60.5	54.4	63.9	-9.0	-7.6	-10.2
경북	89.2	87.4	90.9	73.6	67.9	77.7	65.1	59.8	68.4	-8.5	-8.1	-9.3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주1: 1983년과 1992년생의 동일한 연령 간 비교를 위해 1983년생이 만 31세('23년 기준 1992년생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

주2: 대구·경북 혼인신고서 거주지 기준, 혼외출산 제외

2. 출산 자녀 수

- '83년생 여성 중 혼인 후 2명 이상 출산한 사람의 비율은 대구 62.2%, 경북 66.5%로 전국(62.1%) 대비 대구는 0.1%p, 경북은 4.4%p 높음
 - '92년생 여성 중 혼인 후 2명 이상 출산한 사람의 비율은 대구 31.4%, 경북 39.8%로 전국(34.2%) 대비 대구는 2.8%p 낮고, 경북은 5.6%p 높음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 여성 중 혼인 후 2명 이상 출산한 사람의 비율은 대구는 23.9%p, 경북은 22.2%p 낮음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 남성의 혼인 후 2명 이상 출산한 사람의 비율은 대구는 19.7%p, 경북은 20.4%p 낮음

<표 8> 대구·경북에서 혼인 후 다자녀 출산(2명 이상) 비율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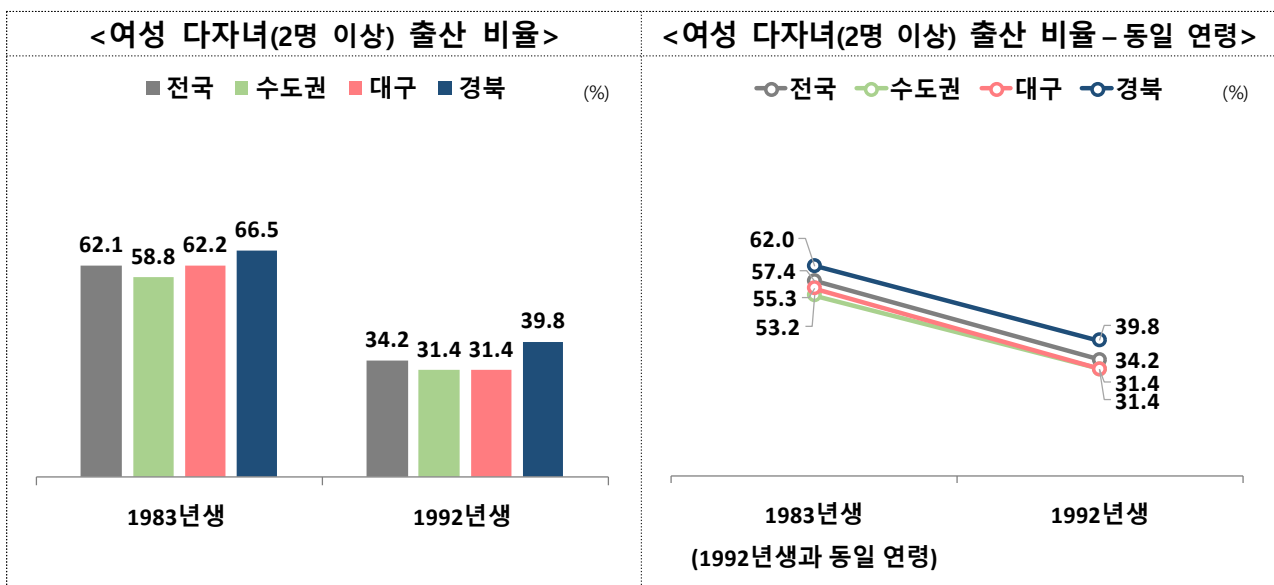
	1983년생			1992년생과 동일 연령 ^{주1} (A)			1992년생(B)			차이(B-A)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59.3	56.0	62.1	54.7	49.4	57.4	32.6	29.6	34.2	-22.1	-19.8	-23.2
수도권	55.9	52.6	58.8	50.5	45.3	53.2	30.1	27.5	31.4	-20.4	-17.8	-21.8
대구	59.6	56.1	62.2	53.0	47.5	55.3	30.3	27.8	31.4	-22.7	-19.7	-23.9
경북	64.2	61.6	66.5	59.2	53.6	62.0	37.5	33.2	39.8	-21.7	-20.4	-22.2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주1: 1983년과 1992년생의 동일한 연령 간 비교를 위해 1983년생이 만 31세('23년 기준 1992년생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

주2: 대구·경북 혼인신고서 거주지 기준

주3: 혼외출산 제외



3. 출산 연령

- '83년생 중 혼인한 여성의 평균 초산연령은 대구 30.7세, 경북 30.0세로 전국(30.6세) 대비 대구는 0.1세 높고, 경북은 0.6세 낮음
 - '92년생 중 혼인한 여성의 평균 초산연령은 대구 27.9세, 경북 27.2세로 전국(27.7세) 대비 대구는 0.2세 높고, 경북은 0.5세 낮음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 중 혼인한 여성의 평균 초산연령은 대구는 0.7세, 경북은 0.9세 낮음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 혼인한 남성의 평균 초산연령은 대구, 경북 모두 1.2세 낮음

<표 9> 대구·경북에서 혼인한 사람의 평균 초산연령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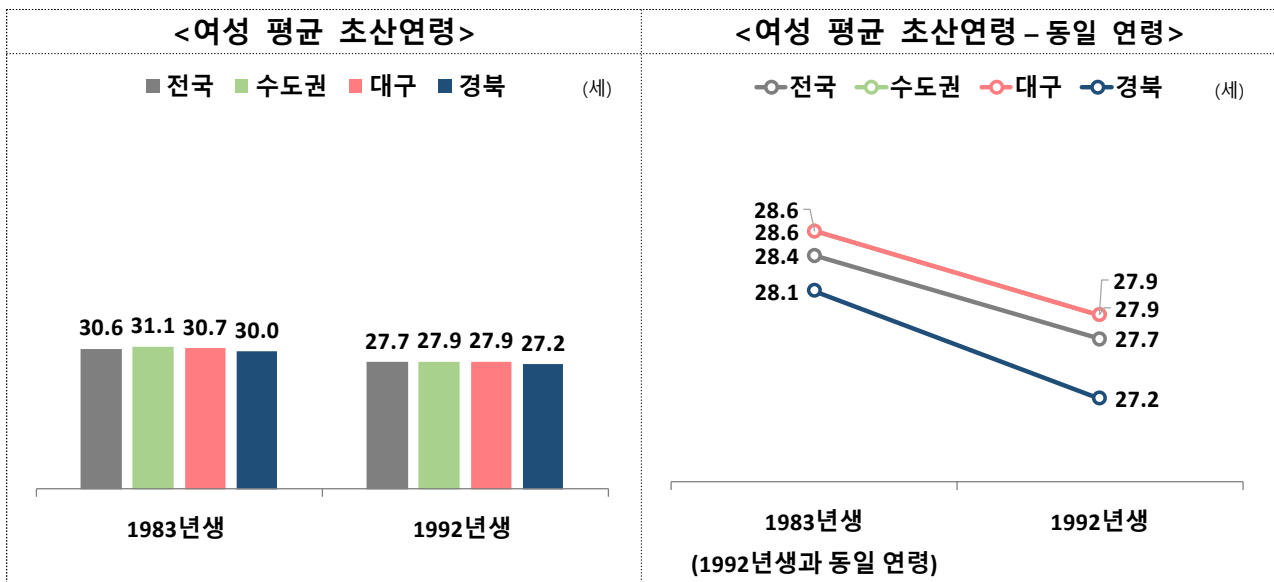
	1983년생			1992년생과 동일 연령 ^{주1} (A)			1992년생(B)			차이(B-A)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31.5	32.5	30.6	28.7	29.2	28.4	27.9	28.2	27.7	-0.8	-1.0	-0.7
수도권	31.9	32.9	31.1	28.9	29.3	28.6	28.1	28.3	27.9	-0.8	-1.0	-0.7
대구	31.5	32.6	30.7	28.9	29.5	28.6	28.0	28.3	27.9	-0.9	-1.2	-0.7
경북	30.9	31.9	30.0	28.5	29.1	28.1	27.5	27.9	27.2	-1.0	-1.2	-0.9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주1: 1983년과 1992년생의 동일한 연령 간 비교를 위해 1983년생이 만 31세(23년 기준 1992년생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

주2: 대구·경북 혼인신고서 거주지 기준

주3: 혼외출산 제외



4. 혼인·출산 간격

- '83년생 여성의 평균 혼인·출산 간격은 대구 22.0개월, 경북 21.3개월로 전국(22.7개월) 대비 대구는 0.7개월, 경북은 1.4개월 짧음
 - '92년생 여성의 평균 혼인·출산 간격은 대구 18.6개월, 경북 17.8개월로 전국(18.5개월) 대비 대구는 0.1개월 길고, 경북은 0.7개월 짧음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 여성의 평균 혼인·출산 간격은 대구는 0.9개월, 경북은 0.1개월 길게 나타남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 남성의 평균 혼인·출산 간격은 대구는 0.2개월, 경북은 0.6개월 짧음

<표 10> 대구·경북에서 혼인한 사람의 평균 혼인·출산 간격^{주3)}

(단위: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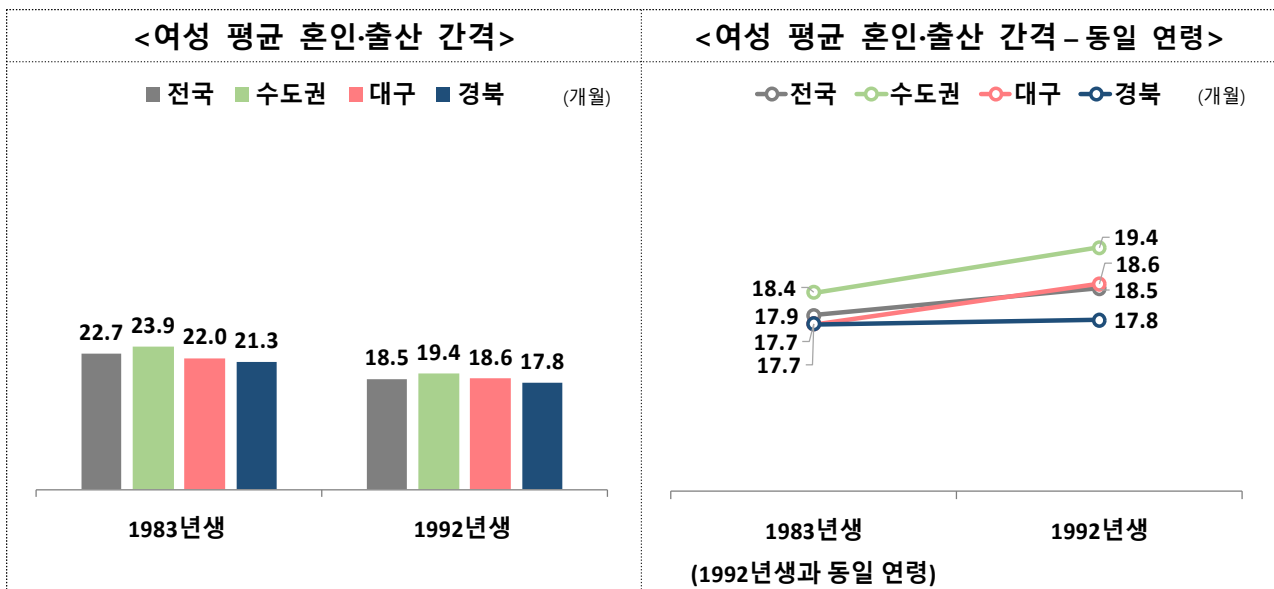
	1983년생			1992년생과 동일 연령 ^{주1} (A)			1992년생(B)			차이(B-A)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22.7	22.8	22.7	17.3	16.4	17.9	17.8	16.5	18.5	0.5	0.1	0.6
수도권	24.1	24.2	23.9	17.9	16.9	18.4	18.6	17.1	19.4	0.7	0.2	1.0
대구	21.9	21.8	22.0	17.1	16.1	17.7	17.7	15.9	18.6	0.6	-0.2	0.9
경북	21.2	21.1	21.3	17.2	16.5	17.7	17.2	15.9	17.8	0.0	-0.6	0.1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주1: 1983년과 1992년생의 동일한 연령 간 비교를 위해 1983년생이 만 31세('23년 기준 1992년생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

주2: 대구·경북 혼인신고서 거주지 기준

주3: 혼인·출산 간격 = 출생(초산)신고년월 - 실제혼인(초혼)년월



- '83년생 여성 중 혼인·출산 간격이 3년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대구 16.6%, 경북 16.5%로 전국(18.3%) 대비 대구는 1.7%p, 경북은 1.8%p 낮음
 - '92년생 여성 중 혼인·출산 간격이 3년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대구 12.7%, 경북 12.0%로 전국(13.1%) 대비 대구는 0.4%p, 경북은 1.1%p 낮음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 여성의 혼인·출산 간격이 3년 이상인 비율은 대구가 3.4%p, 경북이 1.4%p 높음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 남성의 혼인·출산 간격이 3년 이상인 비율은 대구가 1.3%p, 경북이 0.1%p 높음

<표 11> 대구·경북 혼인자 중 혼인·출산 간격^{주3)} 3년 이상인 사람 비율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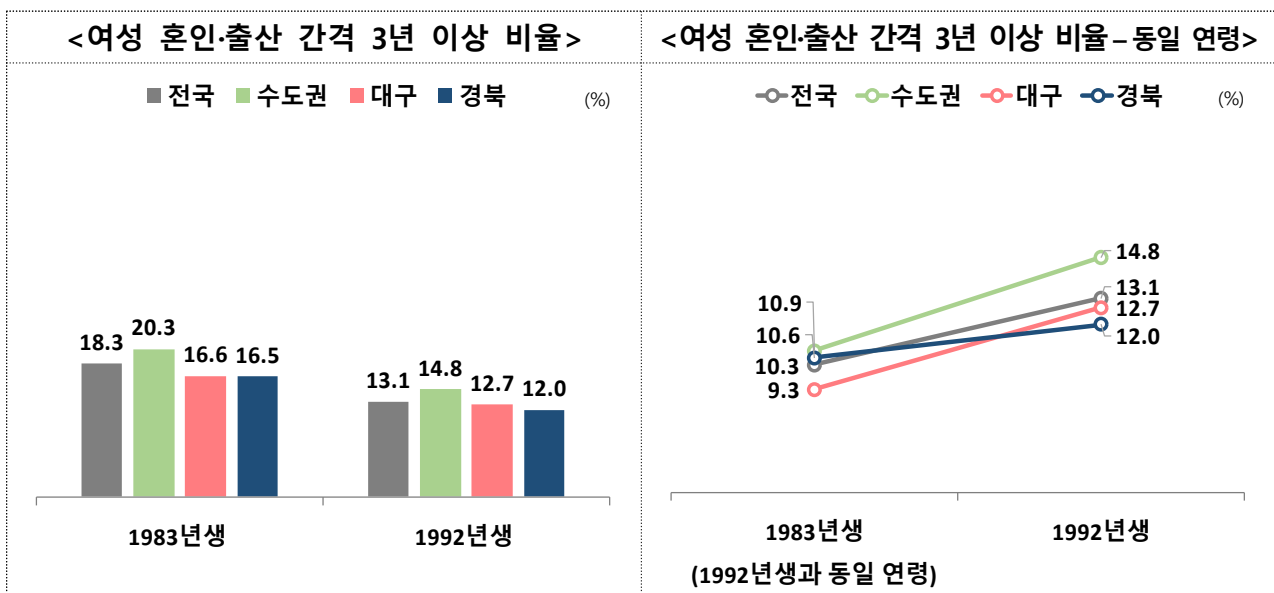
	1983년생			1992년생과 동일 연령 ^{주1} (A)			1992년생(B)			차이(B-A)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18.7	19.1	18.3	9.6	8.3	10.3	12.1	10.2	13.1	2.5	1.9	2.8
수도권	20.9	21.5	20.3	10.2	8.9	10.9	13.5	11.1	14.8	3.3	2.2	3.9
대구	16.8	17.0	16.6	8.6	7.1	9.3	11.4	8.4	12.7	2.8	1.3	3.4
경북	16.3	16.2	16.5	9.7	8.4	10.6	10.8	8.5	12.0	1.1	0.1	1.4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주1: 1983년과 1992년생의 동일한 연령 간 비교를 위해 1983년생이 만 31세(23년 기준 1992년생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

주2: 대구·경북 혼인신고서 거주지 기준

주3: 혼인·출산 간격 = 출생(초산)신고년월 - 실제혼인(초혼)년월



III. 혼인 · 출산 간 이동 현황

※ 혼인·출산 간 이동은 직업, 교육, 가족관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산 목적으로만 이동한 것을 의미하지 않음에 유의

1. 혼인 · 출산 간 이동

- '92년생 대구·경북에서 혼인 후 다른 지역(타 시도)에서 출산한 비율은 대구 20.9%, 경북 18.4%로 '83년생 대비 각각 0.5%p, 2.1%p 낮음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 대구·경북에서 혼인 후 다른 지역(타 시도)에서 출산한 비율은 대구 1.8%p, 경북 2.6%p 낮음
 - '92년생 여성의 혼인 후 다른 지역(타 시도)에서 출산한 비율은 대구 23.1%, 경북 20.1%로 남성 대비 각각 6.7%p, 4.8%p 낮음

<표 12> 대구·경북 혼인자 중 다른 지역(타 시도)에서 출산한 비율

(단위: %, %p)

		1983년생	1992년생과 동일 연령 ^{주1} (A)	1992년생(B)	차이(B-A)
대구	계	21.4	22.7	20.9	-1.8
	남	15.7	15.8	16.4	0.6
	여	25.8	26.3	23.1	-3.2
경북	계	20.5	21.0	18.4	-2.6
	남	15.1	14.5	15.3	0.8
	여	25.0	25.1	20.1	-5.0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주1: 1983년과 1992년생의 동일한 연령 간 비교를 위해 1983년생이 만 31세(23년 기준 1992년생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

- '92년생 대구·경북에서 혼인 후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에서 출산한 비율은 대구 26.7%, 경북 14.1%로 '83년생 대비 각각 1.7%p, 0.5%p 높음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의 혼인 후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에서 출산한 비율은 대구는 1.6%p 높고, 경북은 0.1%p 낮음
 - '92년생 여성의 혼인 후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에서 출산한 비율은 대구 28.2%, 경북 14.9%로 남성 대비 각각 4.8%p, 2.2%p 높음

<표 13> 대구·경북 혼인자 중 다른 지역(동일 시도&타 시군^{경북구군대구})에서 출산한 비율

(단위: %, %p)

		1983년생	1992년생과 동일 연령 ^{주1} (A)	1992년생(B)	차이(B-A)
대구	계	25.0	25.1	26.7	1.6
	남	20.5	19.1	23.4	4.3
	여	28.4	28.1	28.2	0.1
경북	계	13.6	14.2	14.1	-0.1
	남	11.1	11.1	12.7	1.6
	여	15.7	16.2	14.9	-1.3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주1: 1983년과 1992년생의 동일한 연령 간 비교를 위해 1983년생이 만 31세(23년 기준 1992년생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

- '92년생 대구·경북에서 출산한 사람 중 다른 지역(타 시도)에서 혼인한 비율은 대구 14.3%, 경북 20.8%로 '83년생 대비 각각 0.2%p, 0.7%p 낮음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 대구·경북에서 출산한 사람 중 다른 지역(타 시도)에서 혼인한 비율은 대구 1.2%p, 경북 0.1%p 낮음
 - '92년생 여성 출산자 중 타 시도에서 혼인한 비율은 대구 15.3%, 경북 23.4%로 남성 대비 각각 3.1%p, 7.4%p 높음

<표 14> 대구·경북 출산자 중 다른 지역(타 시도)에서 혼인한 비율

(단위: %, %p)

		1983년생	1992년생과 동일 연령 ^{주1} (A)	1992년생(B)	차이(B-A)
대구	계	14.5	15.5	14.3	-1.2
	남	11.5	12.2	12.2	0.0
	여	16.9	17.3	15.3	-2.0
경북	계	21.5	20.9	20.8	-0.1
	남	16.3	14.2	16.0	1.8
	여	26.0	25.2	23.4	-1.8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주1: 1983년과 1992년생의 동일한 연령 간 비교를 위해 1983년생이 만 31세(23년 기준 1992년생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

2. 혼인 · 출산 간 주요 이동 지역

- '83년생 대구에서 혼인하고 타 시도에서 출산한 사람의 출산 지역 비율은 대경권^{경북}(45.4%), 수도권(23.3%), 동남권(18.2%), 중부권(7.8%) 순임
 - '92년생 대구에서 혼인하고 타 시도에서 출산한 사람의 출산 지역 비율은 대경권^{경북}(45.7%), 동남권(19.2%), 수도권(18.9%), 중부권(9.7%) 순임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 대구 혼인 & 타 시도 출산의 출산 지역 비율은 대경권^{경북}은 1.2%p 높고, 수도권은 4.6%p 낮음
 - '92년생 여성은 대경권^{경북}(45.9%), 동남권(19.6%), 수도권(17.8%), 중부권(9.6%) 순, 남성은 대경권^{경북}(44.9%), 수도권(22.4%), 동남권(18.1%), 중부권(9.8%) 순임

<표 15> 대구 혼인 & 타 시도 출산자의 출산 지역 비율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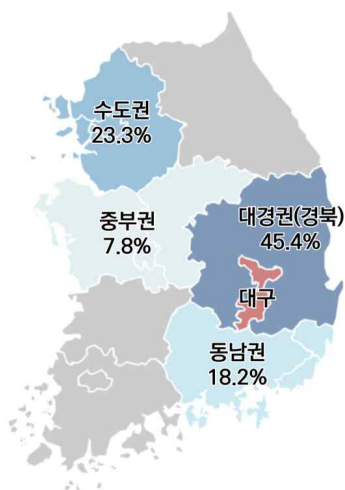
	1983년생			1992년생과 동일 연령 ^{주1} (A)			1992년생(B)			차이(B-A)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수도권	23.3	20.8	24.5	23.5	21.3	24.2	18.9	22.4	17.8	-4.6	1.1	-6.4
대경권 ^{경북}	45.4	50.0	43.3	44.5	47.1	43.7	45.7	44.9	45.9	1.2	-2.2	2.2
동남권	18.2	16.0	19.2	17.8	15.5	18.6	19.2	18.1	19.6	1.4	2.6	1.0
중부권	7.8	7.5	7.9	8.2	9.0	8.0	9.7	9.8	9.6	1.5	0.8	1.6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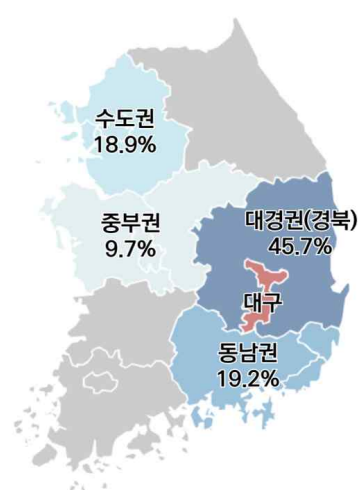
주1: 1983년과 1992년생의 동일한 연령 간 비교를 위해 1983년생이 만 31세(23년 기준 1992년생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

주2: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경권(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중부권(대전·세종·충북·충남)

<대구 혼인&타 시도 출산의 지역 비율^{'83년생}>



<대구 혼인&타 시도 출산의 지역 비율^{'92년생}>



- '83년생 경북에서 혼인하고 타 시도에서 출산한 사람의 출산 지역 비율은 수도권(30.2%), 대경권^{대구}(29.7%), 동남권(22.4%), 중부권(11.8%) 순임
 - '92년생 경북에서 혼인하고 타 시도에서 출산한 사람의 출산 지역 비율은 대경권^{대구}(27.4%), 수도권(26.8%), 동남권(23.6%), 중부권(13.1%) 순임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 경북 혼인 & 타 시도 출산의 출산 지역 비율은 대경권^{대구}은 0.5%p, 수도권은 4.0%p 낮음
 - '92년생 여성은 대경권^{대구}(28.7%), 수도권(25.1%), 동남권(23.1%), 중부권(13.6%) 순, 남성은 수도권(30.7%), 동남권(24.9%), 대경권^{대구}(24.2%), 중부권(11.9%) 순임

<표 16> 경북 혼인 & 타 시도 출산자의 출산 지역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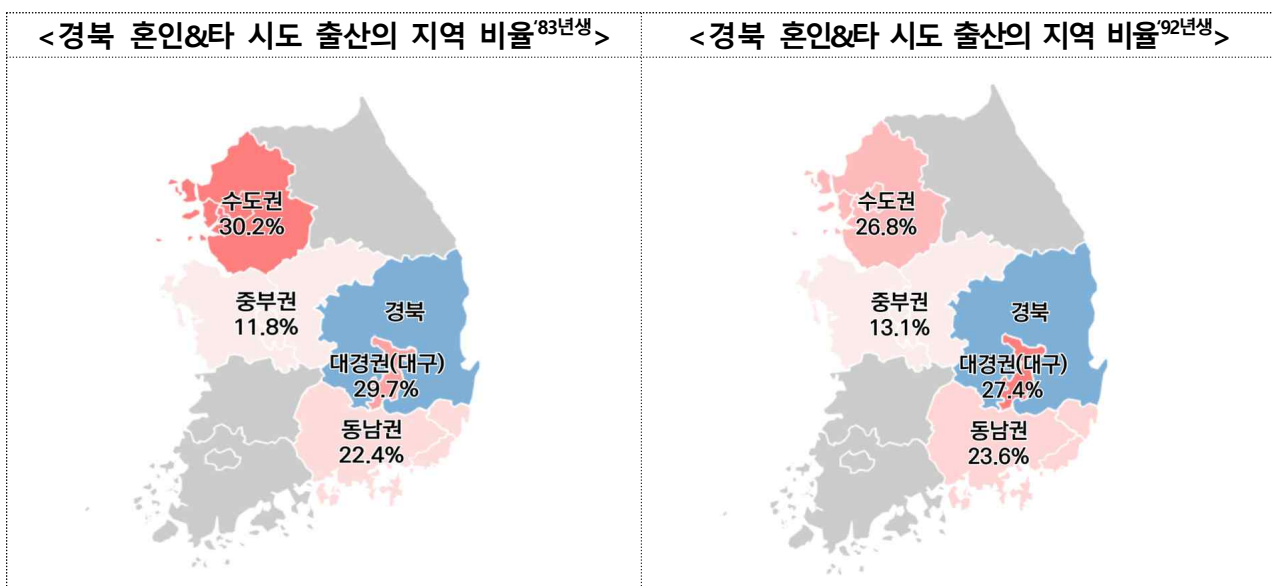
(단위: %, %p)

	1983년생			1992년생과 동일 연령 ^{주1} (A)			1992년생(B)			차이(B-A)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수도권	30.2	28.9	30.9	30.8	30.9	30.7	26.8	30.7	25.1	-4.0	-0.2	-5.6
대경권 ^{대구}	29.7	31.8	28.5	27.9	28.8	27.5	27.4	24.2	28.7	-0.5	-4.6	1.2
동남권	22.4	21.4	23.0	22.9	22.1	23.1	23.6	24.9	23.1	0.7	2.8	0.0
중부권	11.8	11.7	11.8	12.3	11.5	12.6	13.1	11.9	13.6	0.8	0.4	1.0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주1: 1983년과 1992년생의 동일한 연령 간 비교를 위해 1983년생이 만 31세('23년 기준 1992년생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

주2: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대경권(대구),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중부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 '83년생 중 타 시도에서 혼인하고 대구에서 출산한 사람의 혼인 지역 비율은 대경권^{경북}(47.0%), 동남권(21.5%), 수도권(20.0%), 중부권(5.4%) 순임
 - '92년생 중 타 시도에서 혼인하고 대구에서 출산한 사람의 혼인 지역 비율은 대경권^{경북}(43.2%), 동남권(23.1%), 수도권(21.2%), 중부권(6.2%) 순임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 타 시도 혼인 & 대구 출산의 혼인 지역 비율은 대경권^{경북}은 4.5%p 낮고, 수도권은 4.5%p 높음
 - '92년생 여성은 대경권^{경북}(44.7%), 동남권(22.8%), 수도권(21.7%), 중부권(5.5%) 순, 남성은 대경권^{경북}(39.4%), 동남권(23.9%), 수도권(20.0%), 중부권(7.8%) 순임

<표 17> 타 시도 혼인 & 대구 출산자의 혼인 지역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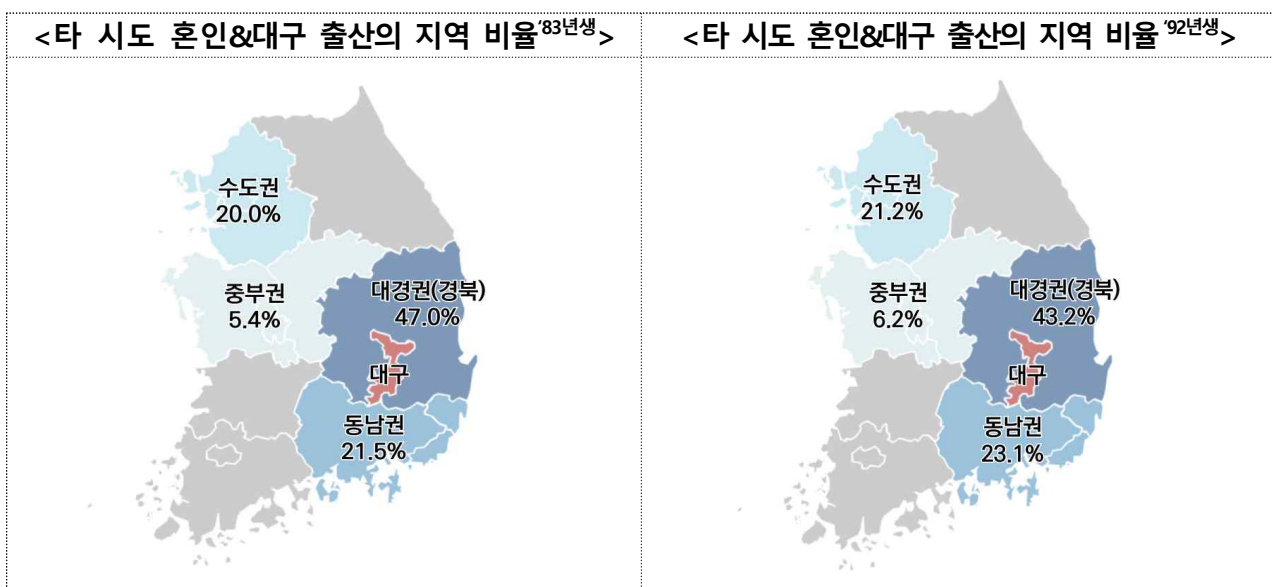
(단위: %, %p)

	1983년생			1992년생과 동일 연령 ^{주1} (A)			1992년생(B)			차이(B-A)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수도권	20.0	21.1	19.3	16.7	16.9	16.6	21.2	20.0	21.7	4.5	3.1	5.1
대경권 ^{경북}	47.0	47.9	46.5	47.7	47.0	48.0	43.2	39.4	44.7	-4.5	-7.6	-3.3
동남권	21.5	19.0	23.0	23.4	22.0	23.9	23.1	23.9	22.8	-0.3	1.9	-1.1
중부권	5.4	6.1	5.0	5.2	6.6	4.7	6.2	7.8	5.5	1.0	1.2	0.8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주1: 1983년과 1992년생의 동일한 연령 간 비교를 위해 1983년생이 만 31세('23년 기준 1992년생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

주2: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대경권(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중부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 '83년생 중 타 시도에서 혼인하고 경북에서 출산한 사람의 혼인 지역 비율은 대경권^{대구}(43.1%), 수도권(21.4%), 동남권(21.3%), 중부권(7.5%) 순임
 - '92년생 중 타 시도에서 혼인하고 경북에서 출산한 사람의 혼인 지역 비율은 대경권^{대구}(39.3%), 동남권(21.8%), 수도권(21.0%), 중부권(10.5%) 순임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 타 시도 혼인 & 경북 출산의 혼인 지역 비율은 대경권^{대구}은 2.7%p 낮고, 중부권은 2.0%p 높음
 - '92년생 여성은 대경권^{대구}(40.1%), 동남권(22.1%), 수도권(19.8%), 중부권(10.6%) 순, 남성은 대경권^{대구}(37.0%), 수도권(24.4%), 동남권(21.1%), 중부권(10.1%) 순임

<표 18> 타 시도 혼인 & 경북 출산자의 혼인 지역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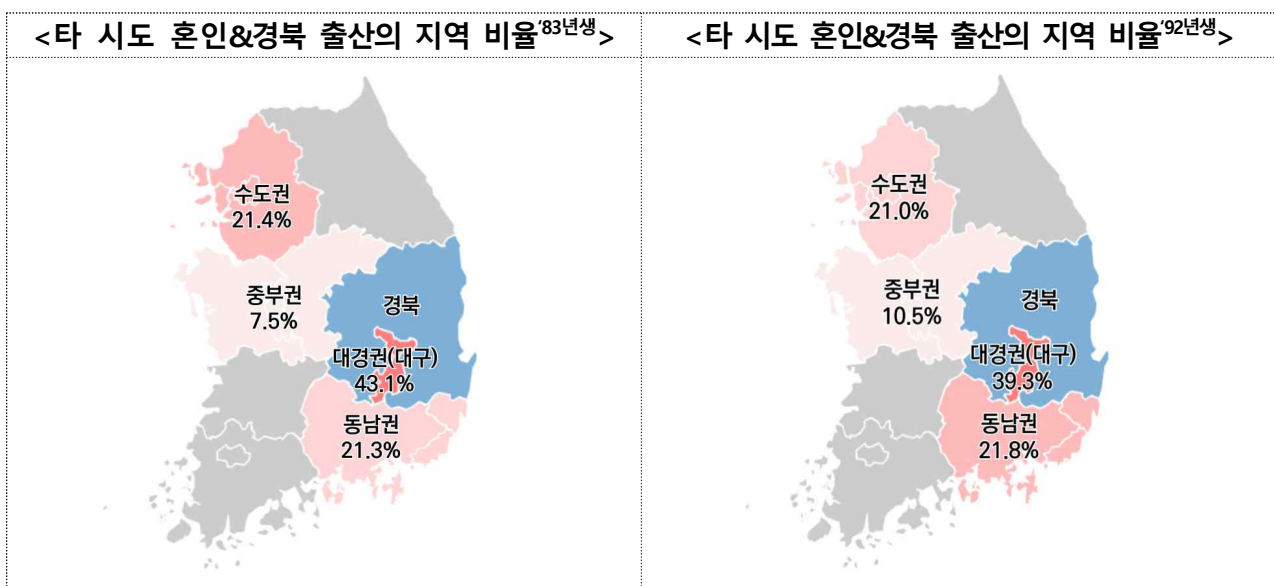
(단위: %, %p)

	1983년생			1992년생과 동일 연령 ^{주1} (A)			1992년생(B)			차이(B-A)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수도권	21.4	22.7	20.7	19.3	23.2	18.0	21.0	24.4	19.8	1.7	1.2	1.8
대경권 ^{대구}	43.1	43.3	43.1	42.0	39.9	42.7	39.3	37.0	40.1	-2.7	-2.9	-2.6
동남권	21.3	20.0	22.1	22.6	20.4	23.3	21.8	21.1	22.1	-0.8	0.7	-1.2
중부권	7.5	8.1	7.2	8.5	10.1	7.9	10.5	10.1	10.6	2.0	0.0	2.7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주1: 1983년과 1992년생의 동일한 연령 간 비교를 위해 1983년생이 만 31세(23년 기준 1992년생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

주2: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경권(대구),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중부권(대전·세종·충북·충남)



3. 혼인·출산 간 순이동

- 대구 혼인·출산 간 순이동(유입-유출)은 '83년생 -1,672명, '92년생 -373명으로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구의 구군별 순이동을 보면, '83년생 순유출 지역은 달서구(-437명), 수성구(-325명), 동구(-287명) 순이고, 순유입 지역은 달성군(48명)임
 - '92년생 순유출 지역은 달서구(-103명), 동구(-68명), 중구(-63명) 순이고, 순유입 지역은 달성군(31명)임

<표 19> 대구 혼인·출산 간 순이동

(단위: 명)

	1983년생	1992년생
순이동	-1,672	-373
순유출 (상위 3개)	달서구(-437), 수성구(-325), 동구(-287)	달서구(-103), 동구(-68), 중구(-63)
순유입	달성군(48)	달성군(31)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주1: 순이동 = 타 시도 혼인자 중 대구에서 출산한 사람 수 - 대구 혼인자 중 타 시도에서 출산한 사람 수

주2: 군위군 제외

- 경북 혼인·출산 간 순이동(유입-유출)은 '83년생 293명, '92년생 167명으로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경북 시군별 순이동을 보면, '83년생 순유출 지역은 경주시(-139명), 포항시(-75명), 청도군(-53명) 순이고, 순유입 지역은 경산시(298명), 구미시(248명), 안동시(68명) 순임
 - '92년생 순유출 지역은 칠곡군(-44명), 경주시(-15명), 성주군(-12명) 순이고, 순유입 지역은 경산시(60명), 구미시(45명), 영천시(38명) 순임

<표 20> 경북 혼인·출산 간 순이동

(단위: 명)

	1983년생	1992년생
순이동	293	167
순유출 (상위 3개)	경주시(-139), 포항시(-75), 청도군(-53)	칠곡군(-44), 경주시(-15), 성주군(-12)
순유입 (상위 3개)	경산시(298), 구미시(248), 안동시(68)	경산시(60), 구미시(45), 영천시(38)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주1: 순이동 = 타 시도 혼인자 중 대구에서 출산한 사람 수 - 대구 혼인자 중 타 시도에서 출산한 사람 수

주2: 군위군 제외

4. 직업별 다른 지역 출산 비율

- 대구에서 혼인한 사람의 직업별^{혼인시} 다른 지역(타 시도) 출산 비율은 무직이 '83년생 29.4%, '92년생 27.4%로 가장 높음
 - '83년생 여성은 기능·조립·단순노무 종사자(33.9%)가 가장 높고, 서비스·판매 종사자(18.3%)가 가장 낮고, 남성은 무직(19.2%)이 가장 높고, 서비스·판매 종사자(10.1%)가 가장 낮음
 - '92년생 여성은 무직(26.4%)이 가장 높고, 사무 종사자(17.8%)가 가장 낮고, 남성은 무직(34.1%)이 가장 높고, 서비스·판매 종사자(11.4%)가 가장 낮음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의 대구 혼인 & 타 시도 출산 비율은 사무 종사자가 3.8%p 낮고, 서비스·판매 종사자는 4.0%p 높음

<표 21> 대구 혼인자의 직업별 다른 지역(타 시도)에서 출산한 비율

(단위: %, %p)

	1983년생			1992년생과 동일 연령 ^{주1} (A)			1992년생(B)			차이(B-A)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9	14.7	25.6	22.2	14.1	26.2	20.3	15.5	22.6	-1.9	1.4	-3.6
관리자·전문가	20.0	15.6	24.3	20.5	15.1	24.0	19.9	15.1	22.4	-0.6	0.0	-1.6
사무	19.6	16.1	22.6	20.1	16.7	22.1	16.3	12.2	17.8	-3.8	-4.5	-4.3
서비스·판매	13.5	10.1	18.3	13.2	7.9	19.1	17.2	11.4	21.4	4.0	3.5	2.3
기능·조립·단순노무	17.2	14.8	33.9	19.0	14.7	39.4	17.2	15.5	26.1	-1.8	0.8	-13.3
학생·가사·무직	29.4	19.2	30.4	29.6	16.7	30.7	27.4	34.1	26.4	-2.2	17.4	-4.3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주1: 1983년과 1992년생의 동일한 연령 간 비교를 위해 1983년생이 만 31세(23년 기준 1992년생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

주2: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미상·군인 제외

- 경북에서 혼인한 사람의 직업별^{혼인시} 다른 지역(타 시도) 출산 비율은 무직이 '83년생 26.6%, '92년생 23.3%로 가장 높음
- '83년생 여성은 관리자·전문가 종사자(28.7%)가 가장 높고, 기능·조립·단순노무 종사자(14.8%)가 가장 낮고, 남성은 무직(23.5%)이 가장 높고, 기능·조립·단순노무 종사자(9.9%)가 가장 낮음
 - '92년생 여성은 무직(22.2%)이 가장 높고, 기능·조립·단순노무 종사자(11.4%)가 가장 낮고, 남성은 무직(29.9%)이 가장 높고, 기능·조립·단순노무 종사자(9.2%)가 가장 낮음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의 경북 혼인 & 타 시도 출산 비율은 관리자·전문가가 6.2%p 낮고, 서비스·판매 종사자는 2.2%p 높음

<표 22> 경북 혼인자의 직업별 다른 지역(타 시도)에서 출산한 비율

(단위: %, %p)

	1983년생			1992년생과 동일 연령 ^{주1} (A)			1992년생(B)			차이(B-A)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0	14.1	24.9	20.5	13.1	25.0	17.7	13.7	19.7	-2.8	0.6	-5.3
관리자·전문가	22.9	17.5	28.7	24.3	17.4	29.5	18.1	13.2	20.6	-6.2	-4.2	-8.9
사무	18.6	14.7	22.6	19.0	13.0	23.6	16.1	12.3	17.8	-2.9	-0.7	-5.8
서비스·판매	15.0	11.4	20.2	14.1	10.0	19.4	16.3	12.4	19.1	2.2	2.4	-0.3
기능·조립·단순노무	11.0	9.9	14.8	11.3	10.1	14.3	10.0	9.2	11.4	-1.3	-0.9	-2.9
학생·가사·무직	26.6	23.5	26.8	26.1	20.8	26.5	23.3	29.9	22.2	-2.8	9.1	-4.3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주1: 1983년과 1992년생의 동일한 연령 간 비교를 위해 1983년생이 만 31세(23년 기준 1992년생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

주2: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미상군인 제외

5. 맞벌이 여부별 다른 지역 출산 비율

- 대구에서 혼인한 사람의 맞벌이 여부^{혼인시}별 다른 지역(타 시도) 출산 비율은 '83년생과 '92년생 모두 맞벌이가 각각 19.2%, 17.7%로 가장 낮음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의 맞벌이 여부별 타 시도 출산 비율은 맞벌이는 2.2%p 낮고, 아내 외벌이는 28.9%p 높음

<표 23> 대구 혼인자의 맞벌이 여부별 다른 지역(타 시도)에서 출산한 비율
(단위: %, %p)

	1983년생	1992년생과 동일 연령 ^{주1} (A)	1992년생(B)	차이(B-A)
계	20.9	22.1	19.8	-2.3
맞벌이	19.2	19.9	17.7	-2.2
남편 외벌이	23.9	25.6	21.7	-3.9
아내 외벌이	19.5	16.9	45.8	28.9
무직	23.8	23.0	25.3	2.3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주1: 1983년과 1992년생의 동일한 연령 간 비교를 위해 1983년생이 만 31세('23년 기준 1992년생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

주2: 미상군인 제외

- 경북에서 혼인한 사람의 맞벌이 여부^{혼인시}별 다른 지역(타 시도) 출산 비율은 '83년생과 '92년생 모두 맞벌이가 각각 19.3%, 15.5%로 가장 낮음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의 맞벌이 여부별 타 시도 출산 비율은 맞벌이는 4.4%p 낮고, 무직은 4.9%p 높음

<표 24> 경북 혼인자의 맞벌이 여부별 다른 지역(타 시도)에서 출산한 비율
(단위: %, %p)

	1983년생	1992년생과 동일 연령 ^{주1} (A)	1992년생(B)	차이(B-A)
계	19.9	20.4	16.9	-3.5
맞벌이	19.3	19.9	15.5	-4.4
남편 외벌이	20.1	20.6	17.6	-3.0
아내 외벌이	29.3	28.4	28.2	-0.2
무직	24.8	21.8	26.7	4.9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주1: 1983년과 1992년생의 동일한 연령 간 비교를 위해 1983년생이 만 31세('23년 기준 1992년생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

주2: 미상군인 제외

IV. 혼인 · 출산 간 직업 현황

1. 혼인 · 출산 시 직업 여부

- 혼인과 출산 시 모두 직업이 있는 비율은 '83년생은 대구 59.9%, 경북 59.6%, '92년생은 대구 64.3%, 경북 64.3%p임
 - '83년생 대비 '92년생의 혼인과 출산 시 모두 직업이 있는 비율은 대구 4.4%p, 경북 4.7%p 높음
- 대구 혼인과 출산 시 모두 직업이 있는 비율은 '92년생 남성은 88.4%로 '83년생(92.0%) 대비 3.6%p 감소, '92년생 여성은 53.5%로 '83년생(36.1%) 대비 17.4%p 높음
 - 경북 혼인과 출산 시 모두 직업이 있는 비율은 '92년생 남성은 87.7%로 '83년생(93.0%) 대비 5.3%p 감소, '92년생 여성은 52.4%로 '83년생(31.9%) 대비 20.5%p 높음

<표 25> 대구·경북 혼인자의 혼인·출산 시 직업 여부

(단위: %, %p)

			혼인: ● 출산: ●	혼인: ● 출산: ○	혼인: ○ 출산: ●	혼인: ○ 출산: ○
전국	1983년생	계	64.7	14.9	3.5	16.9
		남	92.9	2.8	2.7	1.5
		여	41.3	24.9	4.1	29.6
	1992년생	계	66.5	11.1	5.1	17.3
		남	88.6	4.3	3.6	3.5
		여	55.4	14.5	5.9	24.2
수도권	1983년생	계	67.7	14.9	3.5	13.9
		남	93.2	2.8	2.7	1.3
		여	46.2	25.2	4.1	24.5
	1992년생	계	67.8	11.4	5.1	15.7
		남	88.9	4.1	3.9	3.2
		여	57.4	15.0	5.8	21.8
대구	1983년생	계	59.9	16.7	3.5	19.9
		남	92.0	3.3	3.0	1.7
		여	36.1	26.6	3.9	33.4
	1992년생	계	64.3	11.9	5.4	18.4
		남	88.4	4.9	3.0	3.7
		여	53.5	15.1	6.4	25.0
경북	1983년생	계	59.6	15.1	3.2	22.1
		남	93.0	2.8	2.6	1.7
		여	31.9	25.4	3.8	39.0
	1992년생	계	64.3	10.8	5.8	19.1
		남	87.7	4.1	4.6	3.6
		여	52.4	14.3	6.4	27.0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주1: ● 직업 있음, ○ 직업 없음

주2: 초혼 시 직업 기준

주3: 미상·군인 제외

- 동일 연령 기준으로 비교하면, 혼인과 출산 시 모두 직업이 있는 비율은 '83년생은 대구 50.2%, 경북 52.0%, '92년생은 대구 64.3%, 경북 64.3%임
 - '83년생 대비 '92년생의 혼인과 출산 시 모두 직업이 있는 비율은 대구 14.1%p, 경북 12.3%p 높음
- 대구 혼인과 출산 시 모두 직업이 있는 비율은 '92년생 남성은 88.4%로 '83년생(90.4%) 대비 2.0%p 감소, '92년생 여성은 53.5%로 '83년생(30.4%) 대비 23.1%p 높음
 - 경북 혼인과 출산 시 모두 직업이 있는 비율은 '92년생 남성은 87.7%로 '83년생(91.7%) 대비 4.0%p 감소, '92년생 여성은 52.4%로 '83년생(27.9%) 대비 24.5%p 높음

<표 26> 대구·경북 혼인자의 혼인·출산 시 직업 여부 - 동일 연령^{주1}

(단위: %, %p)

동일 연령 (만 31세)			혼인: ● 출산: ●	혼인: ● 출산: ○	혼인: ○ 출산: ●	혼인: ○ 출산: ○
전국	1983년생	계	55.8	17.0	3.7	23.6
		남	91.5	2.1	3.8	2.5
		여	35.1	25.6	3.6	35.7
	1992년생	계	66.5	11.1	5.1	17.3
		남	88.6	4.3	3.6	3.5
		여	55.4	14.5	5.9	24.2
수도권	1983년생	계	58.6	17.3	3.8	20.2
		남	91.7	2.0	4.0	2.3
		여	39.5	26.2	3.7	30.6
	1992년생	계	67.8	11.4	5.1	15.7
		남	88.9	4.1	3.9	3.2
		여	57.4	15.0	5.8	21.8
대구	1983년생	계	50.2	19.0	3.5	27.4
		남	90.4	2.4	4.4	2.9
		여	30.4	27.1	3.0	39.5
	1992년생	계	64.3	11.9	5.4	18.4
		남	88.4	4.9	3.0	3.7
		여	53.5	15.1	6.4	25.0
경북	1983년생	계	52.0	16.8	3.2	28.0
		남	91.7	2.3	3.2	2.7
		여	27.9	25.7	3.2	43.3
	1992년생	계	64.3	10.8	5.8	19.1
		남	87.7	4.1	4.6	3.6
		여	52.4	14.3	6.4	27.0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주1: 1983년과 1992년생의 동일한 연령 간 비교를 위해 1983년생이 만 31세(23년 기준 1992년생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

주2: 초혼 시 직업 기준

주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미상·군인 제외

2. 직업별 혼인·출산 시 직업 여부

- '83년생의 직업^{혼인시}별 혼인·출산 시 모두 직업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대구, 경북 모두 관리자·전문가 종사자가 각각 62.2%, 59.4%로 가장 높고,
- 대구, 경북 모두 기능·조립·단순노무 종사자가 각각 44.5%, 47.0%로 가장 낮음
- '92년생의 직업^{혼인시}별 혼인·출산 시 모두 직업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대구, 경북 모두 사무 종사자가 각각 84.2%, 84.1%로 가장 높고,
- 대구는 기능·조립·단순노무 종사자(67.4%), 경북은 서비스·판매 종사자(67.7%)가 가장 낮음

<표 27> 대구·경북 혼인자의 직업별 혼인·출산 시 직업 여부(혼인: 직업있음, 출산: 직업있음)

(단위: %, %p)

		1983년생			1992년생과 동일 연령 ^{주1} (A)			1992년생(B)			차이(B-A)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계	81.2	97.1	62.3	76.5	97.7	57.9	85.8	95.6	79.3	9.3	-2.1	21.4
	관리자·전문가	81.3	97.0	65.1	76.3	98.0	61.4	85.7	95.0	80.6	9.4	-3.0	19.2
	사무	80.3	97.9	64.1	74.6	98.1	58.9	88.3	97.3	84.6	13.7	-0.8	25.7
	서비스·판매	77.6	95.6	52.6	74.6	96.9	48.1	80.0	93.7	70.0	5.4	-3.2	21.9
	기능·조립·단순노무	90.9	97.5	51.7	88.4	97.5	49.5	92.0	97.0	74.5	3.6	-0.5	25.0
수도권	계	81.9	97.1	64.7	77.1	97.9	60.1	85.6	95.7	79.3	8.5	-2.2	19.2
	관리자·전문가	82.3	96.9	66.8	77.6	98.2	63.0	85.8	95.0	80.5	8.2	-3.2	17.5
	사무	81.7	98.0	66.5	75.8	98.2	61.3	88.6	97.9	84.6	12.8	-0.3	23.3
	서비스·판매	78.6	95.6	55.1	75.8	97.1	50.2	79.8	93.9	69.6	4.0	-3.2	19.4
	기능·조립·단순노무	89.8	97.2	53.4	87.5	97.6	51.1	90.0	96.4	70.5	2.5	-1.2	19.4
대구	계	78.2	96.5	57.5	72.6	97.5	52.8	84.5	94.9	78.1	11.9	-2.6	25.3
	관리자·전문가	79.2	96.8	62.2	74.4	97.9	59.4	84.4	96.4	78.3	10.0	-1.5	18.9
	사무	75.4	97.5	56.8	68.1	98.2	50.0	87.6	97.1	84.2	19.5	-1.1	34.2
	서비스·판매	76.1	94.5	49.6	71.6	96.1	44.4	79.0	90.7	70.6	7.4	-5.4	26.2
	기능·조립·단순노무	90.2	96.9	44.5	86.8	96.9	40.4	91.8	96.6	67.4	5.0	-0.3	27.0
경북	계	79.8	97.4	55.7	75.5	97.6	52.2	85.7	95.9	78.7	10.2	-1.7	26.5
	관리자·전문가	79.0	97.3	59.4	72.7	97.4	54.4	86.1	95.0	81.7	13.4	-2.4	27.3
	사무	78.2	97.7	58.2	73.6	98.2	54.8	88.1	97.1	84.1	14.5	-1.1	29.3
	서비스·판매	76.1	95.9	47.6	74.5	96.8	45.4	78.3	93.2	67.7	3.8	-3.6	22.3
	기능·조립·단순노무	86.7	98.0	47.0	82.8	97.7	46.3	90.1	97.9	75.7	7.3	0.2	29.4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주1: 1983년과 1992년생의 동일한 연령 간 비교를 위해 1983년생이 만 31세(23년 기준 1992년생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

주2: 초혼 시 직업 기준

주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미상·군인·무직 제외

□ '83년생의 직업^{혼인시}별 혼인 시 직업이 있고 출산 시 직업이 없는 여성의 비율은 대구, 경북 모두 기능·조립·단순노무 종사자가 각각 55.5%, 53.0%로 가장 높고,

○ 대구, 경북 모두 관리자·전문가 종사자가 각각 37.8%, 40.6%로 가장 낮음

□ '92년생의 직업^{혼인시}별 혼인 시 직업이 있고 출산 시 직업이 없는 여성의 비율은 대구는 기능·조립·단순노무 종사자(32.6%), 경북은 서비스·판매 종사자(32.3%)가 가장 높고,

○ 대구, 경북 모두 사무 종사자가 각각 15.8%, 15.9%로 가장 낮음

<표 28> 대구·경북 혼인자의 직업별 혼인·출산 시 직업 여부(혼인: 직업있음, 출산: 직업없음)

(단위: %, %p)

		1983년생			1992년생과 동일 연령 ^{주1} (A)			1992년생(B)			차이(B-A)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계	14.9	2.8	24.9	17.1	2.1	25.6	11.0	4.1	14.4	-6.1	2.0	-11.2
	관리자·전문가	18.7	3.0	34.9	23.7	2.0	38.6	14.3	5.0	19.4	-9.4	3.0	-19.2
	사무	19.7	2.1	35.9	25.4	1.9	41.1	11.7	2.7	15.4	-13.7	0.8	-25.7
	서비스·판매	22.4	4.4	47.4	25.4	3.1	51.9	20.0	6.3	30.0	-5.4	3.2	-21.9
	기능·조립·단순노무	9.1	2.5	48.3	11.6	2.6	50.5	8.0	3.0	25.5	-3.6	0.4	-25.0
수도권	계	15.0	2.8	25.2	17.4	2.0	26.2	11.4	4.0	15.0	-6.0	2.0	-11.2
	관리자·전문가	17.7	3.1	33.2	22.4	1.8	37.0	14.2	5.0	19.5	-8.2	3.2	-17.5
	사무	18.3	2.0	33.5	24.2	1.8	38.7	11.4	2.1	15.4	-12.8	0.3	-23.3
	서비스·판매	21.4	4.4	44.9	24.2	2.9	49.8	20.2	6.1	30.4	-4.0	3.2	-19.4
	기능·조립·단순노무	10.2	2.8	46.6	12.5	2.4	48.9	10.0	3.6	29.5	-2.5	1.2	-19.4
대구	계	16.7	3.3	26.6	19.0	2.4	27.1	11.8	4.7	15.0	-7.2	2.3	-12.1
	관리자·전문가	20.8	3.2	37.8	25.6	2.1	40.6	15.6	3.6	21.7	-10.0	1.5	-18.9
	사무	24.6	2.5	43.2	31.9	1.8	50.0	12.4	2.9	15.8	-19.5	1.1	-34.2
	서비스·판매	23.9	5.5	50.4	28.4	3.9	55.6	21.0	9.3	29.4	-7.4	5.4	-26.2
	기능·조립·단순노무	9.8	3.1	55.5	13.2	3.1	59.6	8.2	3.4	32.6	-5.0	0.3	-27.0
경북	계	15.1	2.5	25.3	16.8	2.3	25.5	10.7	3.8	14.2	-6.1	1.5	-11.3
	관리자·전문가	21.0	2.7	40.6	27.3	2.6	45.6	13.9	5.0	18.3	-13.4	2.4	-27.3
	사무	21.8	2.3	41.8	26.4	1.8	45.2	11.9	2.9	15.9	-14.5	1.1	-29.3
	서비스·판매	23.9	4.1	52.4	25.5	3.2	54.6	21.7	6.8	32.3	-3.8	3.6	-22.3
	기능·조립·단순노무	13.3	2.0	53.0	17.2	2.3	53.7	9.9	2.1	24.3	-7.3	-0.2	-29.4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주1: 1983년과 1992년생의 동일한 연령 간 비교를 위해 1983년생이 만 31세(23년 기준 1992년생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

주2: 초혼 시 직업 기준

주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미상·군인 제외

3. 학력별 혼인·출산 시 직업 여부

- '83년생의 학력^{혼인시}별 혼인·출산 시 모두 직업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대구, 경북 모두 대졸 이상이 대구 64.4%, 경북 65.3%로 높고,
 - '92년생은 대구, 경북 모두 대졸 이상이 대구 67.8%, 경북 69.2%임
 - '83년생 대비 '92년생의 대졸 이상 비율은 대구가 3.4%p, 경북은 3.9%p 높음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 혼인·출생 시 모두 직업이 있는 여성의 비율을 학력별로 보면, 대졸 이상 비율이 대구는 22.1%p, 경북은 24.4%p 높음
 - 남성의 대졸 이상 비율은 대구 1.5%p, 경북은 3.6%p 낮음

<표 29> 대구·경북 혼인자의 학력별 혼인·출산 시 직업 여부(혼인: 직업있음, 출산: 직업있음)

(단위: %, %p)

		1983년생			1992년생과 동일 연령 ^{주1} (A)			1992년생(B)			차이(B-A)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계	64.7	93.0	41.3	55.8	91.5	35.2	66.5	88.6	55.4	10.7	-2.9	20.2
	고졸 이하	48.6	88.6	19.8	41.5	86.9	16.9	54.5	84.2	31.4	13.0	-2.7	14.5
	대졸 이상	70.2	94.3	49.4	62.7	93.6	44.3	71.9	91.7	64.0	9.2	-1.9	19.7
수도권	계	67.7	93.2	46.2	58.7	91.8	39.5	67.8	88.9	57.4	9.1	-2.9	17.9
	고졸 이하	51.0	88.8	23.2	43.7	87.2	19.5	55.0	84.4	33.0	11.3	-2.8	13.5
	대졸 이상	72.9	94.4	54.0	65.4	93.7	48.8	73.6	92.0	66.3	8.2	-1.7	17.5
대구	계	59.9	92.0	36.1	50.2	90.4	30.4	64.3	88.4	53.5	14.1	-2.0	23.1
	고졸 이하	44.1	86.3	14.8	34.6	83.8	11.4	53.9	83.8	27.5	19.3	0.0	16.1
	대졸 이상	64.4	93.5	42.3	56.1	92.7	37.6	67.8	91.2	59.7	11.7	-1.5	22.1
경북	계	59.6	93.0	31.9	52.0	91.7	27.9	64.3	87.7	52.4	12.3	-4.0	24.5
	고졸 이하	46.3	90.1	15.7	40.1	88.4	14.4	55.2	85.0	33.9	15.1	-3.4	19.5
	대졸 이상	65.3	94.0	39.7	58.8	93.4	36.2	69.2	89.8	60.6	10.4	-3.6	24.4

출처: 인구동태코호트DB(국가데이터처)

주1: 1983년과 1992년생의 동일한 연령 간 비교를 위해 1983년생이 만 31세('23년 기준 1992년생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

주2: 초혼 시 최종학력 기준

주3: 최종학력 미상 제외

부록

부록1 「인구동태 코호트 DB」 개요

□ 인구동태 코호트 DB

- (정의)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4종의 통계* DB를 출생기준으로 상호 연계한 DB
 - * 우리나라 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자료임
- (대상) 1983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에서 출생(신고)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구축했으며, 매년 신규 출생 코호트 및 인구동태 사건을 추가

□ 구축 배경

- (이용자 수요 증가) 개별 인구동태통계(출생, 사망, 혼인, 이혼) 자료가 1981년 이후 장기간 축적되면서 자료간 연계를 통한 심층분석 이용자 수요 증가
- (환경 변화)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2015년~) 자료를 활용해 인구동태 연계키를 보완하고, 개인정보보호 기반 데이터 연계 환경^(2018년~)이 마련

□ 구축 방법

- (기초자료) 인구동태통계 DB*와 등록센서스 인구DB**
 - * 출생·혼인·이혼통계 DB는 1981년, 사망통계 DB는 1983년부터 매년 개별로 구축·관리
 - ** 인구총조사가 2015년부터 행정자료기반 등록센서스로 실시, 이후 매년 구축·관리
- (연계 방법) 출생코호트 기준으로 혼인-이혼-출생(산)-사망 DB 등 연계

□ 자료 제공

- (제공 대상) 1983~2008년생 인구동태 코호트
- (제공 방법) SDC 통계데이터센터에서 단계적으로 제공
 - 1단계('21년 말~): 학계, 연구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개인
 - 2단계('24년 이후~): 일반 이용자
- (제공 항목) 출생, 혼인, 자녀출산, 이혼, 사망 등 인구동태 주요 특성 항목 등

통계명	구분	제공 항목
인구총조사	본인	연계키, 출생년월, 성별
출생통계 (자녀출산)	본인	출산시_본인 연령, 최종학력, 직업, 출산시_결혼생활기간 등
	배우자	출산시_배우자 연령, 최종학력, 직업 등
	출생아	출생시_출생년도, 성별, 임신주수, 출생시 체중, 출생지역 등
혼인	본인	혼인시_연령, 최종학력, 직업, 실제결혼년월 등
	배우자	배우자_연령, 최종학력, 직업 등
이혼	본인	이혼시_연령, 최종학력, 직업 등
	배우자	이혼시_연령, 최종학력, 직업 등
사망	본인	사망시_연령, 최종학력, 직업, 사망원인, 사망지역 등

부록2 주요 용어 설명

□ 출생 코호트

- 동일한 시기에 출생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인구 집단(코호트)

□ 혼인신고 지연

- (실제혼인년월)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
- (혼인신고 지연 기간) 초혼 기준으로, 신고혼인년월(혼인신고 기준)이 실제혼인년월을 앞서는 경우를 제외한 신고혼인년월과 실제혼인년월 간 차이(개월)

$$\text{혼인신고 지연 기간} = \text{신고 혼인년월} - \text{실제 혼인년월}$$

□ 출산한 사람

- (혼인 후 출산한 비율) 혼외출산을 제외하고 혼인한 사람 중 출산한 사람의 비율(%)
- (다자녀 출산 비율) 혼인 후 출산한 사람 중 2명 이상 자녀를 출산한 비율(%)

□ 혼인·출산 간격

- 초혼·초산 기준으로, 실제혼인년월과 출생신고년월 간 차이(개월)

$$\text{출생 신고년월} - \text{실제 혼인년월}$$

□ 혼인·출산 간 이동

- (혼인·출산 간 이동) 혼인·출산 당시 혼인신고서 거주지와 출산발생지역^{출생아주소지}이 다른 경우
- (혼인자 중 다른 지역^{타 시도}에서 출산한 비율) 대구·경북 혼인자 중, 혼인·출산 당시 혼인신고서 거주지와 출산발생지역^{출생아주소지}의 시도가 동일하지 않은 비율

$$\frac{\text{혼인 후 출산한 사람}(\text{혼인신고서 거주지}^{\text{시도}} \neq \text{출산발생지역}^{\text{시도}})}{\text{혼인 후 출산한 사람}} \times 100 (\%)$$

- (혼인자 중 다른 지역^{동일 시도}에서 출산한 비율) 대구·경북 혼인자 중, 혼인·출산 당시 혼인신고서 거주지와 출산발생지역^{출생아주소지}이 동일하지 않은* 비율

* 대구의 경우, 대구 시도 내 혼인신고서 거주지구군 $\neq$ 출산발생지역구군

경북의 경우, 경북 시도 내 혼인신고서 거주지시군 $\neq$ 출산발생지역시군

- (출산자 중 다른 지역^{타 시도}에서 혼인한 비율) 대구·경북 출산자 중, 혼인·출산 당시 혼인신고서 거주지와 출산발생지역^{출생아주소지}의 시도가 동일하지 않은 비율

□ 혼인·출산 간 주요 이동지역

- (권역별) 5급 초광역권(수도권, 중부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3개 특별자치도(제주, 전북, 강원)

권역	설명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중부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대경권	대구, 경북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기타 권역	호남권(광주, 전남), 제주, 전북, 강원

□ 혼인·출산 간 순이동

$$\text{유입 혼인출산 간} - \text{유출 혼인출산 간}$$

- (유입 혼인·출산 간) 다른 지역^{타 시도}에서 혼인 후, 대구·경북에서 출산한 사람 수(명)
- (유출 혼인·출산 간) 대구·경북에서 혼인 후, 다른 지역^{타 시도}에서 출산한 사람 수(명)

□ 혼인·출산 간 다른 지역 출산 비율

- (직업별) 혼인(초혼, 실제혼인 기준)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직업 유형별로 대구·경북에서 혼인하고 다른 지역^{타 시도}에서 출산하는 비율

$$\text{혼인자 중 다른 지역}^{\text{타 시도}} \text{ 출산 비율} = \frac{\text{직업 유형별 혼인자 중, 다른 지역}^{\text{타 시도}} \text{ 출산자 수}}{\text{직업 유형별 혼인·출산자 수}} \times 100(\%)$$

- (직업 유형)

직업 분류	설명
관리자·전문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조립·단순노무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학생·가사·무직	학생, 가사, 무직
미상, 군인(사병제외)	미상, 군인(사병제외)

※ 본 분석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미상·군인(사병제외) 제외

- (맞벌이 여부별) 혼인 당시 부부의 취업상태 유형을 기준으로, 대구·경북에서 혼인하고 다른 지역^{타 시도}에서 출산하는 비율

$$\text{혼인자 중 다른 지역}^{\text{타 시도}} \text{ 출산 비율} = \frac{\text{맞벌이 여부 유형별 혼인자 중, 다른 지역}^{\text{타 시도}} \text{ 출산자 수}}{\text{맞벌이 여부 유형별 혼인·출산자 수}} \times 100(\%)$$

- (맞벌이 여부 유형) 맞벌이, 남편 외벌이, 아내 외벌이, 무직^{학생·가사·무직}

□ 혼인·출산 시 직업 여부

- 혼인(초혼, 실제 혼인 기준)·출산(초산, 출생신고 기준) 당시 직업 유무
- (직업별) 혼인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함
- (학력별) 정규학교를 다녔거나 검정고시 등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하는 동등한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로 졸업을 기준으로 함(혼인 당시 최종학력 기준)

$$\text{혼인·출산자 중 혼인, 초산 시 모두 직업이 있는 비율} = \frac{\text{학력별 혼인·출산자 중 혼인, 출산 시 모두 직업이 있는 사람 수}}{\text{혼인 시 학력별 혼인·출산자 수}} \times 100(\%)$$